일본의 독도 강탈 정당화론에 대한 비판*

- 쯔카모도 다카시의 오쿠하라 헤키운 자료 해석을 중심으로 -

김화경**

〈차 례〉

1. 머리말
2. 나카이 요사부로의 인식과 독도의 전략적 가치
3. 『입지전』의 진실과 쯔카모도의 궤변
4. 편의에 따른 논리의 전개의 허구성
5. 맺음말

【국문초록】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면서, 주인이 없는 땅을 자기네가 점령했다는 무주지 선점론(無主地先占論)을 전제로 하였다. 하지만 독도의 강탈을 위해 영토 편입원을 제출한 나카이 요사부(中井養三郎)는 독도를 한국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을 가진 것이었다.

---

* 본 논문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독도연구소장

그러나 쯔카모도 다카시(塚本孝)는 근래에 발견된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의 『다케시마 경영자 나카이 요사부로 씨 입지전(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고 떠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의 땅으로 인식한 것은 「해도(海圖)」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 해도는 1896년 4월에 일본의 해군 수로부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쯔카모도는 해도가 선박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되어, 대상 지역에 있는 도서(島嶼)와 해안선, 수심(水深) 등의 정보를 실은 지도로, 국가의 영토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카이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쯔카모도의 이런 연구가 독도의 강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왜냐하면 「조선전안」에 독도를 그려 넣은 것은 이 섬이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것이 한국의 영토가 아니란 것은 이 지도에 그려진 일본의 일부가 한국의 영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만약에 이러한 그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고 난 다음에 제작된 지도에 독도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독도에 대한 해양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해괴한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의 해군 수로부가 그린 「조선 전안」이란 해도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서양 기원의 정보여서 법적 정치적 의미에서 영유권의 귀속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당시에 해군대신이 명치 헌법(明治憲法)에 부서를 한 것으로 보아, 일본 해군이 헌법기관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를 정치적 법적인 의미에서 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이다.

또 쯔카모도는 자기가 편리한 대로 논리를 전개하다가 보니, 오하라 육군하사가 독도에 일장기를 꽂았던 것을 일본 영토로 볼 수 있다고 했다가, 일본의 영토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일관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당시 해군 수로부장이었던 기모쯔키 가네유키(肝付兼行)가 일본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한국보다 10해리 더 가까우며, 당시에 조선 사람은 독도의 경영에 종사하는 자가 없고 일본 사람은 종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에 편입해야 한다고 한 주장도 거짓말이었음을 구명하였다. 일본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지도에 의하더라도 한국 본토로부터 독도까지의 거리가 일본 본토로부터의 거리보다 5Km 가까웠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오키 섬에서의 거리보다 58Km나 가까웠다. 그리고『입지전』에 의하면 당시에 독도에 조선 사람들이 상당히 드나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모쯔키의 언급은 독도를 강탈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에서 마련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하겠다.

주제어: 독도, 해도, 러일전쟁, 무주지 선점론,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1. 머리말

일본은 지금까지도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이 독도에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을 붙여 자기네 땅으로 편입한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이런 주장은 1905년 1월 28일에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일본 내각의 결정문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별지 내무대신이 논의하기를 청한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함에 오른쪽에 적은 것[1]은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 섬(隱岐島)에서 떨어져 서북으로 85해리에 있는 무인도는 다른 나라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 재 지난 36년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라는 자가 고기를 잡기 위해 집을 짓고 고기 잡는 기구(獵具)를 갖추어, 강치(海驢) 잡이에 착수하여, 이번에 영토 편입 및 대여원(貸與願)을 출원하였는 바, 차제(此際)에 소속과 섬 이름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이 섬에 다케시마란 이름을 붙이고 지금부터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隱岐島司)의 소속으로 하려고 한다고 함으로 이에 심사를 하였더니,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 요사부로란 자가 당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일은 관계 서류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우리나라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청한 것과 같이 각의에서 결정함이 옳다고 인정한다.」[2]

그러나 이러한 내각의 결정문은 자신들의 독도 강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

---

1) 세로로 된 문장이므로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무인도를 가리킨다.

2) "別紙內務大臣請議　無人島所屬ニ關スルニ右ハ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浬ニ在ル無人島ハ他國ニ於テ之ヲ占領シタリト認ムヘキ形跡ナク　昨三十六年本邦人中井養三郎ナル者ニ於テ漁舍ヲ搆ヘ人夫ヲ移シ漁具ヲ備ヘテ海驢獵ニ着手シ　今回領土編入竝ニ貸下ヲ出願セシ所　此際所屬及島名ヲ確定スルノ必要アルヲ以テ該島ヲ竹島ト名ケ自今島根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爲サントスト謂フニ在リ依テ審査スルニ明治三十六年以來中井養三郎ナル者カ該島ニ移住シ漁業ニ從事セルコトハ關係書類ニ依リ明ナル所ナレハ國際法上占領ノ事實アルモノト認メ之ヲ本邦所屬トシ島根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爲シ差支無之儀ト思考ス依テ請議ノ通閣議決定相成可然ト認ム."
「일본내각 결정문」, 1905, 1, 28. 송병기 편: 『독도영유권자료선』(춘천, 2004, 한림대출판부), 195-196쪽.

은 전제는 그들 내각의 전신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의 결정[3]을 뒤집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정부가 이미 자국의 영토로 선언을 한 것[4]까지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학자들은 자기들의 영토 편입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점을 호도하기 위한, 논리의 개발에 혈안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그들은 전자에 대해서는 이 문구가 추후에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삽입되었다고 하여 그 결정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5] 그렇지만 태정관에서 왜 이러한 문구를 넣었는가 하는 것은 일본 측에서 해명을 해야 하는 문제이지 한국 측에서 해명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후자에서 울도 군수가 관할한다고 한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 '관음도'(觀音島)라고 우기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

3) 일본 외무성의 자료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의하면, 외무성과 태정관이 임시 관리였던 사타 하쿠보(佐田白茅)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등에게 "다케시마(竹島: 울릉도)와 마쓰시마(松島: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하: 『독도의 민족 영토사 연구』(서울, 1996, 지식산업사), 157쪽.

4) 광무(光武) 4(1900)년 10월 25일에 반포한 칙령 41호에서 대한제국은 울도(鬱島)의 군수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한다는 것을 고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석도가 돌 섬, 독 섬을 한자로 표기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서종학: 「'독도(獨島)'·'석도(石島)'의 地名表記에 관한 硏究」 『어문연구(139호)』(서울, 200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9-62쪽.

5)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는, 여기에서 말하는 다케시마(竹島)는 오늘날의 독도가 아니라 시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가 『일본도(日本圖)』에서 그린 아르고노트 섬(Argonaut island)으로, 이것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下條正男: 「竹島の日條例から二年」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硏究. 最終報告書』(松江, 2007, 竹島問題硏究會), 1-2쪽.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석도가 관음도였다고 한다면, 1822년에 이규원(李奎遠)이 그린 「울릉외도(鬱陵外圖)」에서 도항(島項)[6]이라고 불렀고, 1910년에 출판된 『한국수산지』 2권에서 '서항도(鼠項島)'[7]라고 했던 관음도를 1900년에는 왜 '석도'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었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야 당연하다. 그런데도 그러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석도가 관음도라고 무턱대고 우기는 것은 남의 나라 공문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역사 왜곡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8]

게다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독도가 임자가 없는 무주지(無主地)였다는 전제를 제시했었다. 그런데 이런 전제에 결정적인 하자(瑕疵)가 되는 것이 독도의 영토 편입과 그 대여원(貸與願)을 제출했다고 하는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었다. 곧 나카이 자신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알고, 그 대여원을 한국 정부에 제출하려고 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던 그로 하여금 영토 편입원을 제출하게 사주한 사람이 바로 당시 외무성의 정무국장이었던 야마자 엔지로(山佐圓四郎)였다. 그러므로 일본의 독도 강탈은 외무성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계획된 책략의 일환이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일본의 연구자들은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새로 찾아냈다고 하는 것이 오쿠하라 히데오(奥原秀夫)가 소장하고

---

6)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 (서울, 2007, 경세원), 97쪽(「울릉도 외도」).

7) 농상공부 수산국 편: 『한국수산지(2)』 (서울, 1910, 인쇄국), 707쪽.

8)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의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사사키 시게루(佐佐木茂)는 "석도는 관음도일 가능성이 높으며, 독도가 아니란 것을 알았다."고 하여, 상당히 완곡한 표현으로 석도가 관음도일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佐佐木茂: 「領土編入に關わる諸問題と資史料」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松江, 2007, 竹島問題研究會), 58-59쪽,

있던, 이른 바『다케시마 경영자 나카이 요사부로 씨 입지전(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9]이란 자료였다. 이 자료는 독도를 강탈한 다음해인 1906년 3월에 현지조사에 참여했던 오쿠하라 헤키운(奧原碧雲)이 기록한 것으로, 당시 도쿄(東京)의 '성공 잡지사'에서 발간되고 있던『성공 - 입지 독립 진보의 벗』이란 잡지에 투고되었던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 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10]

그런데 이것을 집필한 오쿠하라 헤키운이란 사람은 1907년에『다케시마 및 울릉도(竹島及鬱陵島)』[11]란 저서를 출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이번에 발견된『입지전』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논자들은 이 자료에 나카이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근거가 들어있다고 하여, 무슨 커다란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떠들고 있다. 특히 쯔카모도 다카시(塚本孝)는「오쿠하라 헤키운 다케시마 관련 자료(오쿠하라 히데오 소장)를 둘러싸고」란 논고를 통해서 이『입지전』의 자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계획적으로 자료를 왜곡하고 있어, 엄밀한 검증을 거쳐 바로잡아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허언을 일삼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쯔카모도의 논고에서 이『입지전』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

---

9) 다음부터는『입지전』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자료는 "1행 24자의 '헤키운 원고용지(碧雲原稿用紙)"라고 인쇄된 원고용지 10매에 기록된 것(약 4700자)"이라고 한다.
塚本孝:「奧原碧雲竹島關係資料(奧原秀夫所藏)をめぐって」,『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松江, 2007, 竹島問題研究會), 62쪽.

10) 塚本孝: 앞의 글, 62쪽.

11) 이 책은 1907년에 초판이 출판되었던 것은 2005년에 다시 복각하여 출판한 바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奧原碧雲:『竹島及鬱陵島』(松江. 2005, ハ―ベスト出版) 참조

으며,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기로 한다.

2. 나카이 요사부로의 인식과 독도의 전략적 가치

쯔카모도 논고의 왜곡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처음부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알고, 그에 대한 대여원을 한국 정부에 제출하려고 했다는 것은, 나카이가 1910년 오키도청(隱岐島廳)에 제출한 자신의 「이력서」와 그것에 딸린 「사업 경영 개요」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자료1]

「① 본도(本島)가 울릉도에 부속하여 한국의 소령(所領)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차 통감부(統監府)에 가서 할 바가 있지 않을까 하여 상경(上京)해서 여러 가지를 획책하던 중에, ② 당시에 수산국장인 마키 나오마사(牧朴眞)의 주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국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생겨서, 그 조정을 위해 가지가지로 분주히 한 끝에, 당시에 수로국장인 기모쯔키(肝付) 장군의 단정에 의거해서 본도가 완전히 무소속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경영상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진술(具陳)하여 본도를 우리나라(本邦) 영토에 편입하고 또 대여해 줄 것을 내무·외무·농상무의 3대신에게 출원하는 원서를 내무성에 제출하였다. 그랬더니 내무 당국자는 ③ 이 시국(러·일 개전 중: 인용자 주)에 즈음하여 한국령의 의심이 있는 작은 일개 불모의 암초를 손에 넣어 환시(環視)의 제 외국에게 우리나라가 한국 병탄(倂呑)의 야심이 있다는 것의 의심을 크게 하는 것은 이익이 지극히 작은 데 반하여 사태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어떻게 사정을 말하고 변명(陳辯)을 해도 출원은 각하되려고 하였으나, 이래서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곧 외무성에 달려가 당시에 정무국장인 야마자 엔지로(山座圓二郎)에게 가서 논하여 진술(論陳)한 바 있었다. 씨는 ④

시국이야말로 그 영토 편입을 급하게 요청(急要)한다고 하면서, 망루를 세우고 무선 혹은 해저전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 상 대단히 그 형편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특히 외교상 내무성과 같은 고려를 요하지는 않는다. 모름지기 급히 원서를 본 성(本省)에 회부해야 한다고 의기 헌앙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본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편입되었다.」[12]

이 글의 밑줄을 그은 ①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에 나카이 자신은 독도가 울릉도에 속하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의 이런 인식은 당시 일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수도 있다.[13] 그것이 아니라면, 그가 1892년에 잠수기(潛水器)를 가지고 전라도와 충청도의 연안 지방을 돌아다닌 적이

12) "本島ノ鬱陵島ヲ附屬シテ韓國ノ所領ナリト思ハルルヲ以テ將ニ　統監府ニ就テ爲ス所アラントシ上京シテ種種劃策中時ノ水産局長牧　朴眞ノ注意ニ由リテ必ラズシモ韓國領ニ屬セザルノ疑ヲ生ジ其調整　ノ爲メ種種奔走ノ末時ノ水路部長肝付將軍斷定ニ賴リテ本島ノ全ク　無所屬ナルコトヲ確カメタリ依テ經營上必要ナル理由ヲ具陳シテ本島ヲ本邦領土ニ編入シ且ツ貸付セラレンコトヲ內務外務農商務ノ三大臣に願出テ願書ヲ內務省ニ提出シタルニ內務當局者ハ此時局ニ際シ(日露開戰中)韓國領地ノ疑アル蕞爾タル一箇不毛ノ暗礁ヲ收メテ環視ノ諸外國ニ我國ガ韓國併呑ノ野心アルコトノ疑ヲ大ナラシムルハ利益ノ極メテ小ナルニ反シテ事體決シテ容易ナラズトテ如何ニ陳辯スルモ願出ハ將ニ却下セラレントシタリ斯クテ挫折スベキニアラ　ザルヲ以テ直ニ外務省ニ走リ時ノ政務局長山座圓二郎氏ニ就キ大ニ論陳スル所アリタリ氏ハ時局ナレバコソ其領土編入ヲ急要トスルナリ望樓ヲ建築シ無線若クハ海底電信ヲ設置セバ敵艦監視上極メテ屈竟ナラズヤ特ニ外交上內務ノ如キ顧慮ヲ要スルコトナシ須ラク速カニ願書ヲ本省ニ回附セシムベシト意氣軒昂タリ此ノ如クニシテ本島ハ本邦領土ニ編入セラレタリ."
신용하 편저: 『독도영유권자료의 탐구』 (서울, 1999, 독도연구보전협회), 262-263쪽.

13) 1869년에 사타 하쿠보 등이 제출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와, 1877년 태정관에서 시마네현에 내린 『태정관 문서』에서도 "다케시마(竹島) 외 한 섬"이라고 하여, 일본 정부에서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일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환언하면 나카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지방에 진출하여 잠수기 어업을 시도하다가 좌절한 다음, 한국의 서남 해안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산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 헤맸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14] 그 때에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 부탁을 하여 한국 통감부[15]로부터 이 섬을 빌릴 생각으로 상경을 한 나카이는 ②에서와 같이 당시 농상무성 수산국장이었던 마키 나오마사(牧朴眞)를 만나서 "반드시 한국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해군 수로부장(水路部長)이었던 기모쯔키 가네유키(肝付兼行)를 찾아갔다가 "본도가 완전히 무소속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는 그 전에 대만(臺灣) 총독부의 내무국장 대리를 지내다가 당시에 수산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인물로, 그 뒤에 일본 수산회 부총재를 역임한 자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력들을 감안한다면, 그가 독도 연근해의 수산자원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한다. 바꾸어 말하면 마키는 독도를 굳이 한국의 영토로 볼 것이 아니라 차제에 임자가 없는 땅으로 보아, 그 일대의 수산자원을 일본 측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기모쯔키는 나카이에게 독도가 소속이 없는 땅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되어 있으나, 위의 『사업 경영 개요』에는 그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곧 무엇을 근거로 하여, 독도

---

14) 奥原碧雲: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立志傳」,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松江, 2007, 竹島問題研究會), 72쪽.

15) 한국에 통감부가 설치된 것은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제2차 한일보호조약"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여기에서 통감부라고 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金膺龍: 『外交文書で語る日韓合併』(東京, 1996, 合同出版), 198-199쪽.

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섬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겠다.[16]

이 문제는 어찌 되었든 나카이 요사부로는 마키와 기모쯔키의 교사(敎唆)에 의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그것을 빌리기 위해서 그 원서를 1904년 9월 29일 내무성과 외무성, 농상부성의 세 대신에게 제출하였다.[17] 그러자 당시의 내무성 당국자는 ③에서와 같이 "이 시국에 즈음하여 한국령의 의심이 있는 작은 일개 암초를 손에 넣어 환시의 외국에게 우리나라가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다는 것의 의심을 크게 하는 것은 이익이 지극히 작은 데 반하여 사태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출원을 각하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무성 당국자의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곧 당시에 일본의 내무성에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이 섬의 편입이 다른 나라로 하여금 한국 병탄의 의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한 것이 결국은 한국 병탄의 서곡이었다는 사실을 내무성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여기에서 농상무성의 수산국장이었던 마키 나오마사와 해군 수로부장이었던 기모쯔키 가네유키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 소속이 결정되지 않은 섬이라고 하였는데 반해, 내무성의 당국자는 왜 한국의 영토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전국의 토지를 관리하는 내무성으로서는 이 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두루 알다시피 내무성은 시마네현으로부터 「일본해(日本海) 내의

16) 이 문제는 뒤에 고찰하는 『입지전』의 검토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17)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서울, 1996, 지식산업사), 215쪽.

다케시마 외 한 섬(一島)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를 받아, 이 문제를 자기네가 결정하지 않고 1877년에 태정관의 우대신(右大臣)이었던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 물었었다.[18] 그때 이 질의에 대한 회답으로 태정관으로부터 "문의한 다케시마 외 한 섬 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지할 것"[19]이라는 지령문을 받아서 시마네현에 통보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내무성은 다케시마라고 부르던 울릉도 외의 한 섬, 곧 마쓰시마(松島)라고 부르던 독도가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확인은 태정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었다. 이처럼 내무성과 태정관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섬을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곧 한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 섬 사이에 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본 것은 독도가 소속이 없는 섬이 아니라 한국의 영토였음을 시인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는 것이다.

사실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일본의 정부 당국이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독도를 강탈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904년 2월 6일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측이 러시아와의 해전에서 전쟁터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동해상에 위치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바로 이런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밑줄 친 ④의 부분이다. 곧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이었던 야마자 엔지로(山座圓二郎)는 다음과 같은 말은 그러한 인식을 말해주는 증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18) 송병기 편: 『독도영유권자료선』 (춘천, 2004, 한림대출판부), 136-144쪽.

19) "伺之趣竹嶋外一嶋之義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송병기 편: 앞의 책, 155쪽.

「시국이야말로 그 영토 편입을 급하게 요청한다고 하면서, 망루를 세우고 무선 혹은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 상 대단히 그 형편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특히 외교상 내무성과 같은 고려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야마자가 독도에 "망루(望樓)를 세우고 무선 혹은 유선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 상 대단히 그 형편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한 것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실제로 일본 해군은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한 다음, 독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때에 이 임무를 부여받은 니다카 호(新高號)는 1904년 9월 25일에, 민간인들로부터 "본년(1904년)에 들어 몇 번 도항하였는데, 6월 17일 러시아 군함 세 척이 동 섬의 부근에 나타나서 일서 표박(漂泊)한 후 북서로 나아가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20]는 것을 들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보고는 독도 연근해의 전략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전략상의 가치를 알게 된 일본의 해군 군령부(軍令部)는, 발틱 함대가 1904년 10월 15일 리예파야 항(港)을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같은 해 11월 13일 쓰시마 해협을 초계중인 쓰시마 호(對馬號)에게 리앙코르도 섬이 전신소 설치에 적합한 곳인가를 시찰하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또 그런 명령을 받은 쓰시마호의 함장 센도 다케히데(仙頭武英)는 1904년 11월 20일 동도 남단에 3,4평의 평탄한 땅이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21]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당시 해군 수로부장이었던 기모

---

20) 신용하 편저: 『독도 영유권 자료의 탐구(2)』 (서울, 1999, 독도연구보전협회), 252-253쪽.

21) 신용하: 앞의 책, 209-210쪽.

쯔키가 이 섬을 임자가 없는 땅이라고 했던 것이, 단순히 나카이로 하여금 강치(海驢)를 잡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기보다는 독도의 전략상의 가치를 인식하고 명확하게 한국의 영토였던 독도를 강제로 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 러일전쟁의 정보에 밝았던 외무성의 정무국장이었던 야마자 엔지로는 이 섬의 강탈이 당장 전쟁의 승패가 걸린 문제였으므로, 영토 편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상정된다.[22]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본의 독도 강탈은 그야말로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한 영토 확장이었음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독도 강탈을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그 당위성을 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3. 『입지전』의 진실과 쯔카모도의 궤변

일본 측이 독도를 국제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섬이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 임자가 없는 땅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만 독도의 강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나카이 요사부란 자가 이 섬을 한국의 땅으로 알고 있

---

22) 실제로 러시아의 제2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로제스트벤스키(Rozhdestvensky) 중장(中將)이 의식을 잃은 채 포로로 잡힌 곳이 울릉도 부근이었고, 그를 대신해서 함대의 지휘권을 장악한 네보가토프(Nebogatov) 소장(少將)이 모든 주력 잔함(殘艦)을 이끌고 일본에 투항한 곳이 바로 독도 동남방 18마일 지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독도의 전략상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최문형: 「露日 전쟁과 일본의 독도 점취」『역사학보(188)』(서울, 2005, 역사학회), 251쪽.

었다는 것은 그들의 무주지 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던 차에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이 1906년 5월에 집필한 『입지전』이 발견되었으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의 논객들로서는 흥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특히 쯔카모도 다카시(塚本孝)는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했던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찾아냈다고 하면서 논리에 벗어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자료2]

「그런데 동 업이 유망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시하시 마쓰다로(石橋松太郎), 이구찌 류다(井口龍太), 가토 쥬조(加藤重藏) 제씨의 유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경쟁 남획의 폐단이 발생하여, 강치 어업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절멸할 것을 우려해서, 어로 구역(獵口)을 빌려, 제한된 포획을 할 필요를 느끼고, 그 위에 ㉮ 해도에 의하면 동 섬은 조선의 판도에 속함으로, ㉯ 일단 외인의 내습에 만나면, 이것이 보호를 받은 길이 없음으로, 이러한 사업을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대단한 위험이라는 것을 헤아리어, ㉰ 동 섬의 대여를 조선 정부에 청원하여, 독점적으로 어업권을 점유하려고 결심하고, 동년의 어기(漁期)[23]가 끝나자, 일약 만금의 꿈을 안고 상경의 길에 올랐다.」[24]

---

23) 어기(漁期)는 '어떤 특정 구역에서 어떤 특정의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를 말한다.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서울, 1982, 민중서림), 24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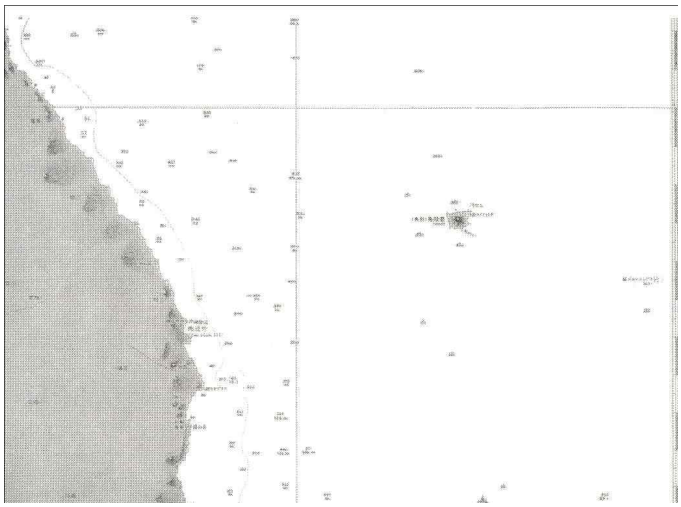
24) "しかるに, 仝業の有望なるを探知するや, 石橋松太郎, 井口龍太, 加藤重藏諸氏の有力なる競爭者あらはれ, 競爭濫獲の弊を生じ, 海驢漁業は數年ならずして絶滅んことを憂ひ, 獵口貸下, 制限捕獲の必要を感じ, 加ふるに, 海圖によれば, 仝島は朝鮮の版(叛)圖に屬するを以て, 一旦外人の來襲に遭ふも, これが保護をうくるの道なきを以て, かかる事業に向って資本を投するの頗る危險なるを察し, 同島貸下を朝鮮政府に請願して, 一手に漁獵權を占有せんと決心し, 仝年の漁期終るや, 一躍(攫)萬金の夢を懷にして上京の途に上れり."

쯔카모도 다카시는 이와 같은『입지전』의 기록에서 ㉮에 나오는 "해도에 의하면 동 섬은 조선의 판도에 속함으로"라는 글귀에만 주목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여기에 등장하는 해도란 그 연대로 미루어 보아, 1896년 4월에 해군 수로부(海軍水路府)에서 발간한 「조선전안(朝鮮全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아래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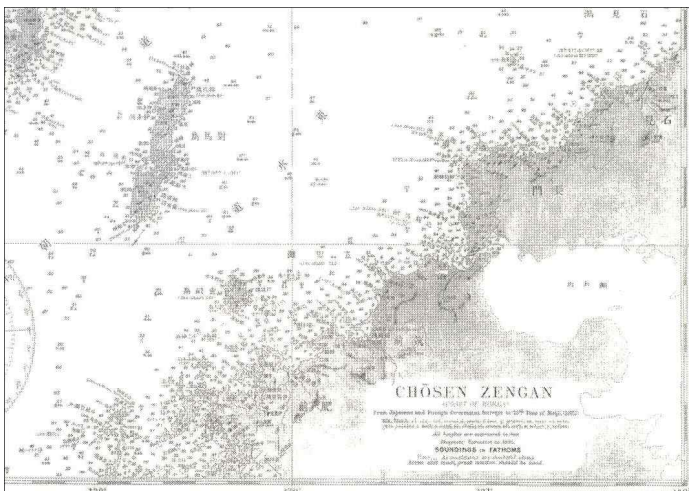


(도 1)

괄호를 한 것은 탈초본에서 정정하여 기록한 것임을 밝혀둔다.
奥原碧雲: 앞의 책, 73쪽.



(도 2)



(도 3)

그러면서 쯔카모도는 나카이 요사부로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 「이 해도에는 조선반도의 동쪽 바다에 '울릉도(마쓰시마: 松島)', 그 곁에 '봇-소-루 암'과 '리앙코-르도 암'을 게재하고 있다(도 2). 이 리앙코-르도 암이 나카이 씨가 말하는 리양코 섬으로 오늘날의 다케시마이다. 『다케시마 경영자 나카이 요사부로 씨 입지전』이 "해도에 의하면, 동 섬이 조선의 판도에 속함으로" 운운하는 것은, 나카이 씨가 「조선전안」이라고 하는 해도에 동 섬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령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
> 그러나 해도는, 선박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되어, 대상 지역에 있는 도서(島嶼)와 해안선, 수심(水深) 등의 정보를 실은 지도로써, 영토의 범위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해도의 제목도, 당해 해도가 다루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명, 지명을 취한 것이고, 그 해도에 게재되어 있는 지역이 제목의 나라에 소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조선 전안」에는 우리 쓰시마(對馬), 이키(壹岐), 규슈(九州), 혼슈(本州)의 해안에 관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다(도 3). 또 메이지(明治) 초년에 있어서 해군 수로부는, 제 외국 특히 영국 해군의 해도를 모방하여 해도를 제작했다. 이 때문에 각 해도의 대상 법위, 제목, 지명 표기를 포함하는 기재 내용은, 원도(原圖)의 강한 영향 아래 있었다. 마쓰시마라고 하는 울릉도의 별명과 리앙코-르도 암이라고 하는 섬 이름도, 서양 기원의 정보이며, 그것 자체 정치적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 영유권의 귀속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25]

이상과 같은 쯔카모도의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순서에 조차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다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첫째로 나카이가 독도를 조선의 판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조선전안」이란 해도에 동 섬이 그려져 있기

25) 塚本孝: 앞의 글, 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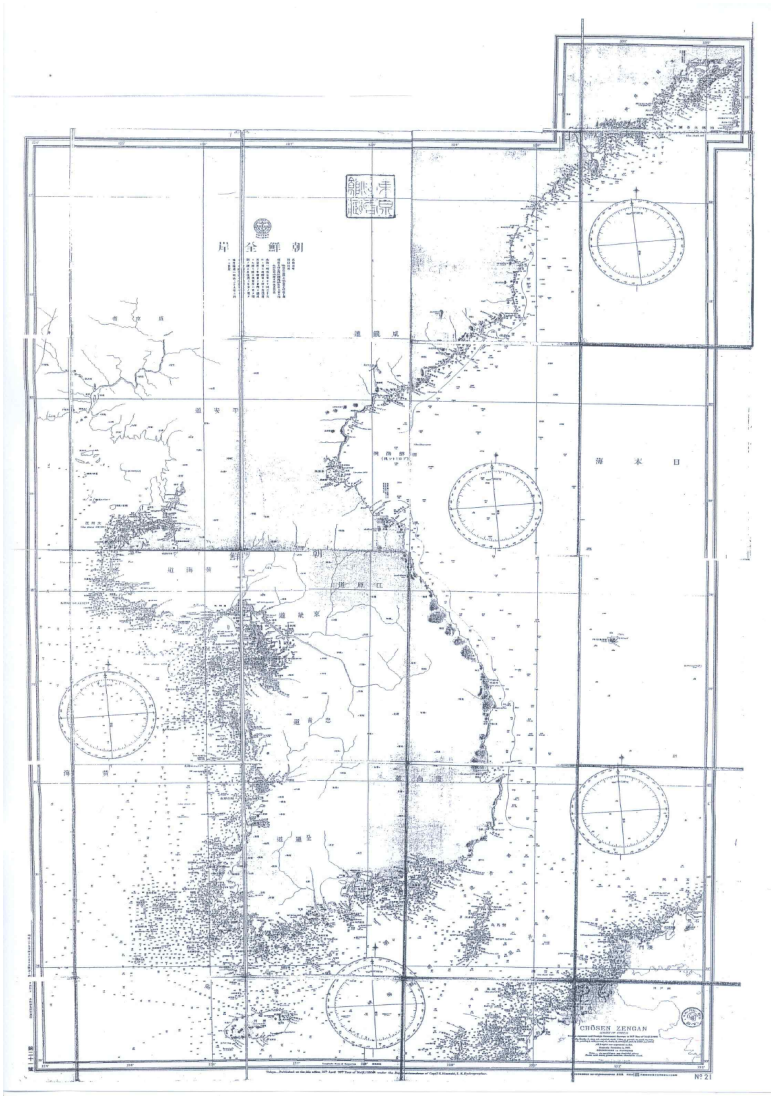
때문이었는데, 둘째로 해도는 선박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상 지역에 있는 도서와 해안선, 수심 등의 정보를 실은 것이므로, 영토의 범위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도 3'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그려진 일본의 일부가 조선의 판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셋째로 메이지 초기에 해군 수로부에서 그린 해도는 외국, 특히 영국 해군의 해도를 모방한 것이어서 그것의 영향을 받은, 서양 기원의 정보이며, 그것 자체가 정치적 법적인 의미에서 영유권의 귀속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이야말로 일본의 독도 강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자료 2의 ㉮에서 보는 것처럼 해도에 리앙코-르도 암, 곧 독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나카이가 이 섬을 조선의 판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런 해석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의 "일단 외인의 내습을 만나면 이것이 보호받은 길이 없으므로" 동 섬의 대여를 조선 정부에 청원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무시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나카이가 조선 정부로부터 독도를 대여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료 2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본 내에 강치 잡이가 유망한 직종이란 것이 알려져 유력한 경쟁자들이 나타남으로써 그 폐해가 우려되었기 때문에, 이 섬에서의 독점적인 어업권을 획득하는 데 있었다. 그렇지만 독도가 조선의 판도에 속하는 땅이었으므로, 동종의 일본인 업자들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독점적인 어업권만으로는 조선 사람들의 도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인들의 내습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 정부로부터의 대여를 청원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 글이 지닌 본래의 의미임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

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맥은 당시에 조선의 어민들이 이 섬에 적잖게 드나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지만 쯔카모도는 이런 본래의 의미는 도외시하고, 단지 해도에 의해 조선의 판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자료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가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해도는 영토의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도 궤변을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는 이 지도에 들어간 일본의 일부를 '도 3'으로 제시하면서 이것들이 한국의 영토가 아니듯이, 독도도 조선의 판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논리의 전개를 위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의 지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특히 이 해도에 들어간 일본의 일부를 다른 것보다 더 확대하여 부여주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그의 이러한 자료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 장으로 된 「조선전안(朝鮮全岸)」을 그대로 제시하기로 한다.



(도 4)[26]

26) 海軍水路部: 「朝鮮全岸」 (東京, 1895, 盛京省), 日本國會圖書館 所藏.

이 지도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본의 해군 수로부에서 그린 「조선전안」에는 '리앙코-르도 암'을 그려 넣기 위해 경도를 동쪽으로 넓혔고, 제주도를 그려 넣기 위해 위도를 남쪽으로 넓혔다는 사실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동쪽과 남쪽으로 경도와 위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일본의 쓰시마와 이키, 규슈, 혼슈 해안의 일부란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 지도에 일본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전공한답시고 떠들면서 독도를 연구하고 있는 쯔카모도는 한 장의 지도를 가지고 원래의 크기와 다른,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를 하였다. 그러면서 '도 2'에 독도가 그려졌다고 하여 그것이 조선의 판도에 속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도 3'에 그려진 일본의 일부가 한국의 영토일 수 없다는 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도에 들어간 것이 나라의 영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의 속셈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과거 일본의 태정관과 외무성에서 조차 조선의 영토로 인정해오던 독도의 강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일본의 학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일본에서도 지도를 제작할 때에 자기네 땅에 부속되는 도서를 그리기 위해 다음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도나 위도 바깥의 지역을 별도로 그리면서 그것을 ❶과 ❷에서와 같이 네모로 처리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다. 곧 이 지도의 위도와 경도만으로는 일본의 관동 지방(關東地方)을 전부 다 표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❶에서는 이즈 7도(伊豆七島)와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를 그려 넣었고 ❷에서는 오가사와라 제도를 확대하여 그

려 넣고 있지 않은가? 이런 방법은 관동 지방에 들어가는 도서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도 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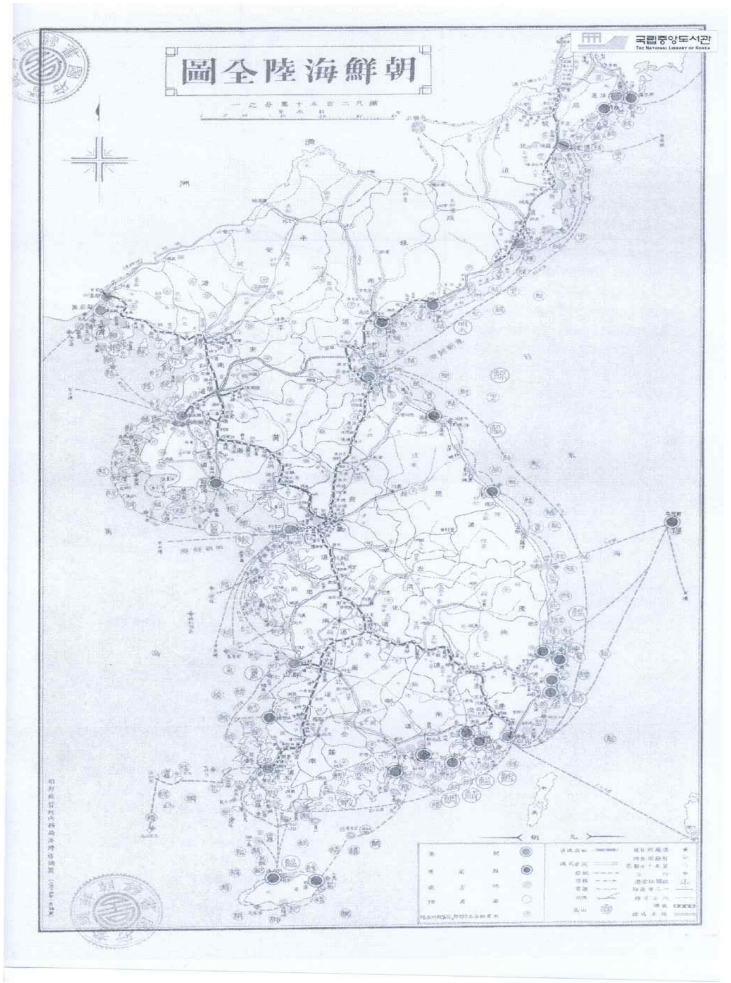
아무리 영토란 것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의 일환으로 수행된 독도의 침탈을, 상식에 벗어나는 논리로 호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쯔카모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조선전안」이란 해도를 제작하면서, 단순한 해로를 나타내기 위해 독도를 그려 넣은 것이지 그것이 나라의 영역과는 관계가

27) 三省堂編輯所: 『新制最近日本地圖』 (東京, 1932, 三省堂), 10-11쪽(關東地方地圖)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강점하고 난 다음에 출판된 지도에서는 하나같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그려 넣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당신의 조상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는 독도에 대한 해양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아래에 제시한 지도는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 항만계에서 『조선의 항만』이란 책을 내면서 첨부한 것이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까지만 그려져 있고, 독도는 들어가 있지 않다. 실제로 한국을 합병하고 난 다음에 그려진 조선 지도에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가 들어간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관에서 그린 것이든 민에서 그린 것이든지를 불문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도에 섬을 그려 넣는 것이 단순히 선박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영토의 범위와는 무관한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쯔카모도의 논리대로라면 '도 6'의 「조선 해륙 전도」에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은 해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독도에 대한 해양 정보가 필요했는데, 한국을 강점하고 난 다음에는 독도의 그런 해양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런데도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으로 기억하기조차 싫어하는, 아프고 쓰라렸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하게 만드는, 독도 강탈 당위론자들의 논리는 신뢰성이 없는 허구의 나열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다.



(도 6)[28]

28) 朝鮮總督府內務局土木課港灣係: 『朝鮮の港灣(附圖別冊)』 (서울, 1925, 朝鮮總督府), 첨부지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임).

위에 제시한 지도는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 항만계에서 『조선의 항만』이란 책을 내면서 첨부한 것이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까지만 그려져 있고, 독도는 들어가 있지 않다. 실제로 한국을 합병하고 난 다음에 그려진 조선 지도에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가 들어간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관에서 그린 것이든 민에서 그린 것이든지를 불문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도에 섬을 그려 넣는 것이 단순히 선박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영토의 범위와는 무관한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쯔카모도의 논리대로라면 '도 6'의 「조선 해륙 전도」에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은 해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독도에 대한 해양 정보가 필요했는데, 한국을 강점하고 난 다음에는 독도의 그런 해양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런데도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으로 기억하기조차 싫어하는, 아프고 쓰라렸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하게 만드는, 독도 강탈 당위론자들의 논리는 신뢰성이 없는 허구의 나열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해도가 외국, 특히 영국 해군의 해도를 모방한 것이어서 그것의 영향을 받은, 서양 기원의 정보이며, 그것 자체가 정치적 법적인 의미에서 영유권의 귀속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주장 역시 사리에 어긋나는 변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해군은 메이지 헌법(明治憲法)에 의해서 설치된 헌법 기관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대신(海軍大臣)은 이 헌법이 공포될 때에 거기에 부서를 하였다.[29] 그러므로 헌법기관에서 제작한 해

29) 古莊定雄 編: 『大日本帝國憲法, 幷ニ附屬法令』 (1889, 熊本, 海西日報社), 1쪽.

도가 설령 영국의 그것을 모방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국가기관의 하나였던 해군이 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외국 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면서까지 지도에 그려진 것이 영유권의 귀속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그의 주장이야말로 독도 강탈의 정당성을 위한, 쯔카모도 식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4. 편의에 따른 논리 전개의 허구성

논리라는 것도 사리에 맞아야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그런데도 쯔카모도는 자기의 편의에 따라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곧 그는 "나카이 씨가 당초 리양코 섬을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에 관해서는, 종래 그 정보의 출전인 오쿠하라 헤키운이 저술한『다케시마 및 울릉도』(1907년)에, 나카이 씨가 메이지(明治) 36년 동 섬에서의 강치 잡이를 계획했을 때 여기에 찬성하여 동 섬에 도항한 오하라 육군 보병 하사가 처음으로 바위 위에 일장기를 펄럭이게 했다는 것과의 모순이 지적되어 왔다."[30]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지적은 나카이가 리양코 섬을 조선 땅으로 생각했던 것이 오하라가 그 섬의 바위에 일장기를 꽂았던 것과는 상치된다고 보았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표현은 이 섬에 일장기를 꽂은 것은 그것을 자기네 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쯔카모도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나카이 요사부로의『영토 편입 대여원』의 설명서 가운데에「본도의 위치 및 유래」에 기

30) 塚本孝: 앞의 글, 65쪽.

록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3]

「종래 우리나라의 어부 등이 울릉도 왕복의 도중에 왕왕 본도(독도를 가리킴: 인용자 주)에 기항하여 머물면서[寄泊], 전복[鮑]을 채취하는 일이 있을 뿐이었으나, 지난 36년(1903년) 5월 나(나카이 요사부를 말함: 인용자 주)는 여기에서 강치 잡이를 계획하여 인부들을 옮기고 고기잡이의 막사[漁舍]를 지으려고 했다. 그리하여 우리 인부들이 상륙하였을 때는 전 섬에는 어떠한 건물들도 발견할 수 없었다. 바꾸어 말하면 본도에 처음으로 건물을 짓고 국기를 세운 자는 실로 현재 출정하여 제4군에 종군하는 예비 하사[軍曹] 오하라 간죠(小原岩藏)로 우리를 위해 인솔하는 인부들의 일행이 되었다.」[31]

그런데 이 자료에는 “바위 위에 일장기를 펄럭이게 했다.”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기를 세운 자는 실로 현재 출정하여 제4군에 종군하는 예비 하사 오하라 간죠로, 우리를 위해 인솔하는 인부들의 일행이 되었다.”라는 것이 적혀 있을 뿐이다. 쯔카모도는 오쿠하라의 『다케시마 및 울릉도』에 “바위 위에 일장기를 펄럭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왜 이 책의 원문을 인용하지 않고 ‘국기를 세운 자’만 밝히고 있는 위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

31) “從來本邦ノ漁夫等鬱陵島往復ノ途次往往本島ニ寄泊シ鮑ヲ採取セルコトノミナリシガ昨三十六年五月余ハ爰ニ海驢獵ヲ企テテ人夫ヲ移シシ漁舍を構エタリ而シテ私儀ノ人夫等ガ上陸セシ際全島一ノ何等建設物ヲモ發見セザリキ卽チ本島ニ初メテ建設物ヲ構エ國旗ヲ樹テタルモノハ實ニ現ニ出征第四軍ニ從軍セル豫備軍曹小原岩藏ガ私儀ノ爲メ帥ヒタル人夫ノ一行ナリトス.”
塚本孝: 앞의 글, 65쪽에서 재인용.
한국북방학회 편집위원회: 『한국북방학회논집(8)』 (서울, 2001, 한국북방학회),자료편: 『竹嶋』, 268쪽에도 이 자료가 실려 있음.

이것은 아마도 전자의 기록에 약간의 문학적인 수사(修辭)가 가미되어 있어, 자료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카이 요사부로가 리양코 섬을 조선의 영토로 생각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있어, 그것을 자기의 논지 전개에 인용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케시마와 울릉도』에 적혀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기로 한다.

[자료4]

「그런데 메이지 36년(1903년) 하쿠슈(伯州: 伯耆國의 다른 이름) 도하쿠군(東伯郡) 고오촌(小鴨村)의 나카이 요사부로 씨(현재 오키국(隱岐國) 사이고정(西鄕町) 거주)가 리양코 섬(新竹島)의 강치 포획업을 기도하자, ㉠ 동향 사람 오하라(小原) 육군 보병 하사(軍曹)가 크게 이것에 찬성하여, 감연히 일어서서(蹶然奮起) 스스로 대장이 되어, 폭 8척(尺) 길이 4간(間)의 고깃배(漁舟)를 타고 일본해(日本海: 동해를 가리킴: 인용자 주)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도리다니 겐죠(鳥谷權藏) 이하 장부(壯夫) 7명을 이끌고, 리양코 섬에 상륙하여, 처음으로 일장기(日章旗)를 바위 위에 펄럭이게 한 것은 메이지 36년 5월 어느 날이었다. 이따금 도젠(島前)의 이시하시 마쓰다로(石橋松太郎) 부하의 어부들도 또 도항(渡航)해서 함께 (강치의) 포획에 종사하면서도 준비 부족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어기(漁期)를 기다려 대 발전할 것을 기약하면서 귀항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강치 포획업이 유리한 것을 알고, 37년(1904년)의 어기에는, 각 방면에서 속속 도항하여, 경쟁 포획의 결과, 여러 가지 피해를 인정한 ㉡ 나카이 요사부로 씨는 리양코 섬을 가지고 조선의 영토라고 믿고, 동 국 정부에 대여 신청의 결심을 하여, 37년 어기(漁期)가 끝나자, 곧 상경하여, 오키(隱岐) 출신인 농상무성 수산국 직원 후지다 간타로(藤田勘太郎) 씨의 주선으로, 마키(牧朴眞) 국장을 면회하여 (그 사정을) 진술한 바 있었다. 동 씨 또 이것에 찬성하여, 해군 수로부에 가서 리양코 섬의 소속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 나카이 씨는 곧 기모쓰키(肝付兼行) 부장을 면회해서, 동 섬의 소속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특히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본국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면 일본

> 쪽이 10해리 가까우며, 그 위에 일본인이면서 동 섬의 경영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이상은, 일본 령으로 편입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듣고, 나카이 씨는 드디어 뜻을 정하고, 리양코 섬 영토 편입 및 대여원을 내무, 외무, 농상무성 3대신에게 제출하였다.」[32]

이 자료에는 ㉠에서 보는 것처럼, 오하라가 독도에 일장기를 꽂았다는 것을 얼마간의 분식(扮飾)을 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의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하기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문학적인 수사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전개하는 논지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자료를 원용하고 있는 쯔카모도의 저의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카이 요사부로 씨는 리양코 섬을 가지고 조선의 영토라고 믿고, 동 국 정부에 대여 신청의 결심을 하여"라는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위의 자료에는 『입지전』에 있는 "해도에 의하면 돔 섬은 조선의 판도에 속함으로"라는 글귀가 빠져 있다. 그 대신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있어, 자신의 논지 전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어떤 자료를 원용하였든, 일장기를 독도에 세웠다고 해서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의 비약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등산가가 미답(未踏)의 산 정상에 자기 나라 국기를 꽂는 행위는 그가 속한 나라의 영토를 취득하는 행위라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논리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어찌하여 나카이가 독도를 조선의 판도로 인식하였다는 말인가? 이와 같은 모순을 잘 알고 있는 쯔카모도는 당시에 독도는 어느 나라에도 소속이 되지 않았던 곳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

32) 奥原碧雲: 앞의 책, 27-28쪽.

「이번에 확인된 오쿠하라 헤케운의 『입지전』은, 이 점에 관해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카이 씨가 파견한 작업자가 일장기를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나카이 씨가 이 섬을 일본령이라고 믿고 있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나, 그러한 일이 행해졌다고 한다면, 나카이 씨가 동 섬을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또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다. 결국 동 섬의 소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나카이 씨를 비롯한 당시의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었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도 그대로였다.」[33]

이것은 나카이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는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로 볼 수 있다고 했다가, 뒤에는 깃발을 꽂았다고 해서 일본령이라고 믿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이 아니고 무엇인가?

연구라는 것이 자료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구명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쯔카모도의 궤변과 허언(虛言)은 쉽게 말해 그들의 독도 강탈을 정당화하겠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해군수로부장이었던 기모쯔키 가네유키(肝付兼行)가 자료 1의 「사업경영개요」에서 독도가 완전히 무소속이라고 한 것 역시 터무니 없는 사실의 왜곡이 있었다는 사실을 위의 자료 4의 ㉡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모쯔키가 리양코 섬, 곧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독도까지 한·일 두나라의 본국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면 일본 쪽이 10해리 더 가깝다는 것과, 둘째 일본인이 동 섬에 종사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의 자료에는 일본 쪽에 10해리가 더 가깝다는 하는

33) 塚本孝: 앞의 글, 65쪽.

것이 한국과 일본의 어디로부터의 거리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독도의 어로 작업에 일본 사람들만 종사한다고 하였지 한국인들의 언급은 없어 객관성이 결여된 담론이었다는 비판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입지전』에는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쯔카모도의 지적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어, 여간 다행이 아니다.

[자료5]

「씨(나카이를 가리킴: 인용자 주)는 우선 오키(隱岐) 출신인 농상무성 수산국 직원인 후지다 간타로(藤田勘太郎)의 주선으로 마키(牧) 수산국장을 면회하여 진술하였는데, 동 씨도 이 일에 찬성하여 먼저 해군 수로부에 가서, 리양코 섬의 소속을 확인하기로 했다. 씨는 곧 기모쯔키(肝付) 수로부장을 면회하여 가르침을 청하자, 동 섬의 소속은 명확한 징증(徵證)이 없고, 특히 ① 일한 양국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면 일본 쪽이 10해리(海里)의 근거리에 있으며(이즈모국(出雲國) 다코하나(多古鼻)로부터 108해리, 조선국 릿도네루 곶(沖)[34]으로부터 118해리), ② 게다가 조선 사람으로서는 종래 동 섬의 경영에 관한 형적이 없는데 반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미 동 섬의 경영에 종사한 자가 있는 이상은, 당연히 일본 영토에 편입해야만 한다는 말을 듣고, 용약 분기(勇躍奮起)해서,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리양코 섬 영토 편입 및 대여원을 내무・외무・농상무 3대신에게 제출하기에 이르렀다.」[35]

---

34) 이 릿도네루 곶이 한국의 어디를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둔다.

35) “氏はまづ隱岐出身なる農商務省水産局員藤田勘太郎氏に圖り，牧水産局長に面會して陳述する處ありきき，仝氏もこの擧を贊成し，先づ海軍水路部につきて，リャンコ島の所屬を確かめしむ，氏は卽ち肝付水路部長に面會してて，教を請ふや，同島の所屬は確乎たる徵證なく，ことに日韓兩國よりの距離を測定すれば，日本の方十浬近距離にあり(出雲國多古鼻より百0八浬，朝鮮國リッドネル岬より百十八浬)，加ふるに，朝鮮人にして從來同島經營に關する形跡なきに反し，本邦人にして旣に同島經營に從事せるものある以上は，當然日本領土に編入すべきものなりとの說を聞き，勇躍奮起，遂に意を

이것은 자료 2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자료 4의 ㉡ 부분을 더욱 명백하게 해주고 있다.[36] 다시 말해 기모쯔기는 ①에서와 같이 일본의 이즈모국 다코하나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108해리인데 반해, 조선의 릿도네루 곶에서는 118해리이기 때문에 일본 쪽이 10해리 더 가깝다는 것이고, ②에서와 같이 이미 동 섬의 경영에 한국 사람은 종사한 자가 없지만, 일본 사람은 종사한 자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기모쯔키가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가지고 독도 편입의 당위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거리의 원근을 근거로 하여 섬의 귀속을 결정하던 관습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미 그 전부터 존재했었다. 이러한 관습은 일본의 『통항일람(通航一覽)』 권 137의 27쪽에 전해지는 로쥬(老中) 아베붕고노카미(阿部豊後守)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 「지금 그곳(당시 일본에서 죽도라고 부르던 울릉도를 가리킴: 인용자 주)의 지리를 헤아려 보니, 이나바(因幡)와의 거리는 160리 정도이고, 조선과의 거리는 40리 정도이다. 이것은 일찍이 그것이 그들의 땅이라는 것을 의심할 바 없는 것 같다.」[37]

이와 같은 관습의 기록은 일본의 자료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광해군(光海君) 시대에 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갔던 이경직(李景稷)의 『부상록(扶桑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

決して, リャンコ島領土編入並に貸下願を內務外務農商務三大臣に提出するに至れり."
奧原碧雲: 앞의 글, 73쪽.

36)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 허구성을 논한 바 있음을 밝혀둔다.
김화경: 「독도 강탈을 둘러싼 궤변의 허구성」, 『독도연구(4)』 (경산, 2008, 영남대 독도연구소), 144-146쪽.

37) 內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東京, 2000, 多賀出版), 86쪽에서 재인용.

어느 한쪽의 일반적인 관습이 아니라 한·일 두 나라가 다 같이 인정하던 관습이었다고 보아야 한다.[38] 그리고 당시 일본의 해군 수로부장이었던 기모쯔키가 이러한 관습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독도까지의 거리를 말하면서 본토로부터의 거리만을 언급한 것이 분명하다.



(도 7)[39]

그러나 최근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위키페디아(Wikipedia) 백과사전』의 지도에 의하면,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울진(蔚珍)에서는 215Km이고 일본의 마쓰에(松江)에서는 220Km로 한국 쪽이 5Km

38) 『부상록』에는 집정관인 오아(大炊)가 "쓰시마(對馬島)는 본시 조선이라 ……하는데 그런가?"라고 물었을 때, 이경직이 "도로의 원근으로 말한다면 쓰시마가 일본과는 멀지마는 조선과는 다만 바다 하나가 끼어있을 뿐으로, 반나절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오이가 "너의 섬은 반드시 조선 지방이니, 마땅히 조선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 에도 조정에서도 쓰시마를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경직: 「부상록」 『국역 해행총재(Ⅲ)』(서울, 1975, 민족문화추진회), 129-130쪽.

39) http://ja.wikipedia.org/wiki에서 인용.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당시에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던 울릉도로부터 독도까지의 거리는 92Km이고, 일본의 오키 섬(隱岐島)로부터 독도까지의 거리는 160Km이다. 그러므로 본토로부터 보든지 아니면 섬으로부터의 본다고 하더라도 독도까지의 거리는 한국 쪽이 더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기모쯔키는 일본에서 10해리가 더 가깝다는 거짓말을 앞세워, 독도를 강탈하여 자기네 땅으로 만드는 데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이다. 그렇지만 이런 편법적인 선동이나 사주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②에서 보는 것처럼 독도의 경영에 조선 사람은 종사하지 않았는데 반해 일본 사람은 관여했다고 하는 주장도, 독도를 강탈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나카이로 하여금 강치를 잡게 하기 위해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니 독도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주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입지전』에서 인용한 자료 2의 밑줄 친 ㉯에서 본 것처럼, “해도에 의하면 동 섬은 조선의 판도에 속함으로 일단 외인(外人)의 내습을 만나면, 이것이 보호를 받은 길이 없음으로”라고 한 것으로부터, 이미 그때에 조선 사람들이 독도에 상당히 많이 출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왜곡하여 일본이 독도를 편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조작했던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은 독도를 빼앗기 위한 사실의 날조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제까지 일본의 쯔카모도 다카시(塚本孝)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竹嶋問題研究會)에서 2007년 3월에 출판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 최종보고서』에 발표한 「오쿠하라 헤키운 다케시마 관계 자료(오쿠하라 히데오 소장)을 둘러싸고」란 논고에서 발표된 『다케시마 경영자 나카이 요사부로 씨 입지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이 원고의 발견으로 나카이가 당시에 독도를 조선의 판도로 생각하게 된 이유를 찾아냈다고 하여, 굉장한 자료를 찾아낸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나카이 요사부로가 직접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사업 경영 개요』에 실린 부분부터 살펴본 다음, 쯔카모도의 주장을 검토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먼저 전자에 대한 고찰을 한 이유는 원래 나카이가 가지고 있던 독도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에 변화를 초래한 기모쯔키 가네유키(肝付兼行)의 언급 및 야마자 엔지로(山座圓二郎)의 편입 권유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첫째로 나카이가 리양코 섬이라고 부른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생각한 것은 당시 일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1892년에 잠수기를 가지고 전라도와 충청도 연안을 돌아다닌 적이 있으므로 그때에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추단을 하였다.

둘째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독도가 한국령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은 당시 농상무성의 마키 나오마사(牧朴眞)이었다. 나카이에게 이런 의심을 가지게 한 마키는 이미 그 전에 대만 총독부의 내무국장 대리를 지내다가 당시에 수산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인물로, 뒤에 일본 수산회의 부총재를 역임한 자이다. 이와 같은 그의 경력으로 보아, 마키

가 독도 연근해의 수산자원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셋째로 마키의 의심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 당사자는 당시 해군 수로부장이었던 기모쯔키 가네유키였다. 하지만 나카이의 『사업 경영 개요』에는 독도가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에 발견된 『입지전』에 의하면, 한·일 양국으로부터 독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일본의 다코하나(多古鼻)에서는 108해리이고, 한국의 릿도네루 곶에서는 118해리가 되어 일본 쪽에 10해리 더 가깝기 때문에 일본에 편입해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모쯔키의 이런 언급은 독도를 강탈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모쯔키가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독도의 경영에 종사하지 않았는데 반해, 일본 사람들은 독도의 경영에 종사했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한 기모쯔키의 지적도 허구라는 사실이 『입지전』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곧 『입지전』에서 "해도에 의하면 동 섬은 조선의 판도에 속함으로, 일단 외인의 내습을 만나면 이것을 보호할 길이 없으므로"라고 한 것에서 말하는 외인은 조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므로,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독도에 드나들었던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모쯔키가 이런 언급들을 한 것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던 수로부장으로서, 독도의 강탈이 러일전쟁의 수행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카이에게 영토의 편입을 사주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았다.

넷째로 이번에 발견된 오쿠하라의 『입지전』이 이와 같은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쯔카모도 다카시는 "해도에 의하면 조선의 판도에 속함으로"란 어구만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해도는 1896년 4월에 일본 해국 수로부에서 제작한 「조선전안」을 가리킨

다고 하며, 이 지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러고는 "해도는 선박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되어, 대상 지역에 있는 도서와 해안선, 수심 등의 정보를 실은 지도로써, 영토의 범위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카이가 이 지도를 보고 독도를 조선의 판도로 생각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지도에 독도가 그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의 영토가 아닌 것은 여기에 그려진 일본의 일부가 한국의 영토가 아닌 것과 같다는 식의 비유를 늘어놓고 있다. 그리고 이 해도는 일본의 해군 수로부가 외국 특히 영국의 해도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정보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선전안』의 원도(原圖)를 보면 독도를 그려 넣기 위해서 경도를 동쪽으로 넓혔고, 제주도를 그려 넣기 위해서 남쪽으로 위도를 넓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들어간 간이 일본의 일부라는 것도 쉽게 판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그려 넣은 것이 조선의 영토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이 지도에 들어간 일본의 일부가 조선의 영토가 아닌 것과 같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삼척동자도 웃을 수밖에 없는 궤변의 나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렇게 본 근거는 일본에서도 경도나 위도 바깥의 자기네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경도와 위도를 넓혀서 그리고 있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다섯째로 만약에 이 해도에 그려진 독도가 조선의 판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항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난 다음에 그려진 지도에는 왜 독도를 그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하고 난 다음에는 독도에 대한 항해 정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여섯째로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제작한 「조선전안」은 영국 해군

의 영향을 받은, 서양 기원의 정보여서, 그것 자체는 법적 정치적 의미에서 영유권의 귀속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이 메이지 헌법(明治憲法)에 의해서 설치된 헌법 기관이라는 사실은 해군대신이 이 헌법에 부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그러므로 헌법 기관에서 제작한 해도를 정치적 법적인 의미에서 그 책임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스스로 헌법 기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쯔카모도는 자기의 편의에 따라 자료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명하였다. 이런 예로 그는 오하라가 독도의 바위 위에 일장기를 꽂았던 행위를 이것을 일본 땅으로 보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가, 나중에는 일본령이라고 믿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들었다. 이와 같은 자료 해석의 자의성은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의 일환으로 독도를 강탈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고찰은 독도 강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자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자료의 왜곡된 해석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번에 발견되었다고 하는 『입지전』의 제대로 된 해석을 위해서는 오쿠하라가 집필한 『다케시마 및 울릉도』란 저서와 나카이가 직접 작성한 『사업 경영 개요』를 서로 대조하면서, 표현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차이가 왜 파생되었는가 하는 문제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그리고 자기네에게 유리한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에서 어떤 구절을 해석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독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을 밝혀둔다. 독도에 대한 사실은 분명하게 하나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이 제각기 자기들에게 유리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첨언해둔다.

참고문헌

김화경, 「독도 강탈을 둘러싼 궤변의 허구성」『독도연구(4)』(경산, 2008, 영남대 독도연구소), 125-153쪽.
농상공부 수산국 편, 『한국수산지(2)』(서울, 1910, 인쇄국)
서종학, 「'獨島'·'石島'의 地名表記에 관한 硏究」『어문연구(139호)』(서울, 200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9-62쪽.
송병기 편, 『독도영유권자료선』(춘천, 2004, 한림대출판부)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서울, 1996, 지식산업사)
_____ 편저, 『독도영유권자료의 탐구(2)』(서울, 1999, 독도연구보전협회)
이경직, 「부상록」『국역 해행총재(Ⅲ)』(서울, 1975, 민족문화추진회)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서울, 2007, 경세원)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서울, 1982, 민중서림)
최문형, 「露日 전쟁과 일본의 독도 점취」『역사학보(188)』(서울, 2005, 역사학회), 249-267쪽.
한국북방학회 편집위원회, 『한국북방학회논집(8)』(서울, 2001, 한국북방학회), 자료편『竹嶋』
古莊定雄 編, 『大日本帝國憲法, 幷ニ附屬法令』(熊本, 1889, 海西日報社)
金膺龍, 『外交文書で語る日韓合併』(東京, 1996, 合同出版)
內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東京, 2000, 多賀出版)
三省堂編輯所, 『新制最近日本地圖』(東京, 1932, 三省堂), 10-11쪽(關東地方地圖)
奧原碧雲, 『竹島及鬱陵島』(松江. 2005, ハ―ベスト出版)
_____,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立志傳」『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硏究-最終報告書』(松江, 2007, 竹島問題硏究會) 71-74쪽.
朝鮮總督府內務局土木課港灣係, 『朝鮮の港灣(附圖別冊)』(서울, 1925, 朝鮮總督府)
佐佐木茂, 「領土編入に關わる諸問題と資史料」『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硏究. 最終報告書』(松江, 2007, 竹島問題硏究會), 58-61쪽.

塚本孝,「奥原碧雲竹島關係資料(奥原秀夫所藏)をめぐって」『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松江, 2007, 竹島問題研究會), 62-70쪽.

下條正男,「竹島の日條例から二年」『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松江, 2007, 竹島問題研究會). 3-8쪽.

海軍水路部,「朝鮮全岸」(東京, 1895, 盛京省), 日本國會圖書館所藏.

http://ja.wikipedia.org/wiki

Criticism on the Justification of Japan's Dokdo Grab

Kim, Hwa-Kyong

Coveting Dokdo, Japan has claimed that it was terra nullius and acquired by occupancy. But Nakai Yosaburo(中井養三郎), who submitted the territory ownership of Dokdo, recognised Dokdo as Korean Territory. Japan's claim has been an obvious contradiction ever since Japan insisted on its prior occupancy of Dokdo as terra nullius.

Tzkamoto Takashi(塚本孝) spoke out that he found out something new from "A Story of Self Made Man, Nakai Yosaburo the Takesima Manager(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 by Okura Hekiwun(奧原碧雲). According to his self made-story, it was the "Marine Chart(海圖)" by which Nakai recognized Dokdo. The Marine Chart was made by the Department of Japanese Navy Hydrography in April 1896. And yet Tzkamoto asserted that Nakai's recognition of Dokdo was wrong, because the Chart was the map not only made for the information of islands, coastlines, and the depths of water in the area but also for the safety of ships sailing around.

This article was to disclose the fact that Tzkamoto's words were mere a quibbling. Because the "Whole Map of Josun" was drown to inform that Dokdo was Korean Territory. Nonetheless, he insisted that the part of Japan drown on the map could not be Korean Territory, presenting it as evidence. Had his insistence been true, it was impossible to explain why Dokdo was not included in the map drown after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His argument made no sense at all, because Japan did not need to have information about Dokdo after its annexation of Korea.

It was also ridiculous that the "Whole Map of Josun" made by the Department of Japanese Navy Hydrography had nothing to do with dominium and ownership in terms of regal and political sense, since it was western origin drown under England influence. At that time, Japanese Navy was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 seeing that the Minister of Navy endorsed Meizi Constitution(明治憲法). Therefore that the map made by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 having nothing to do with responsibility in terms of regal sense, was neglecting their constitution.

Tzkamoto tried to evolve his theory in his own way but he failed to prove that Dokdo was Japan's land, saying first Dokdo was Japan's, as to see Sergeant Ohara fixed Japanese flag on Dokdo and then it was not. This was shown his own inconsistence. Moreover, this article proved that the claim of Kimotzki Kaneyuki(肝付兼行), the director of Department of Japanese Navy Hydrograpy, was wrong. His claim was that the distance from Japan to Dokdo was 10 knots closer than that from Korea to Dokdo, and Dokdo belonged to Japan because at the time Josun people did not work on Dokdo but Japanese did. According to the map recently made by Japan, the distance from Korean Mainland to Dokdo is 5km closer than that from Japan to Dokdo and the distance from Ulleong-do to Dokdo is 58km closer than that from Oki to Dokdo. Since there was quite a many Josun visitors to Dokdo according to "A Story of Self Made Man, Nakai Yosaburo the Takesima Manager", Kimotzki's claim was a pure fabrication in order to seize Dokdo with elaborate plan.

To conclude, in this article it was proved that the study of Kimotzki justified to grab Dokdo was a groundless logic interpreting the materials in his own will.

Key words : Dokdo, marine chart, prior occupancy, terra nullius, imperialism, colonialism

김화경
소속: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41-1 영남대학교
전화번호: 053-810-2121
전자우편: wkkim@ynu.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9년 12월 1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9년 12월 31일 간행함